Entertainment p/18

동방신기 일본에서 관객몰이

metro
메트로 2014년 6월 24일 화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손흥민 한국 축구의 희망봉

간절한 기도 브라질까지 한국과 알제리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이 열린 23일 새벽 서울 강남 영동대로에서 거리 응원을 하는 팬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비가 오락가락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은 한 마음으로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했다. <관련기사 22면> /연합뉴스

우리은행 연내 분할 매각한다

금융위·예보공사 민영화 속도… 지분 전량 팔기로
경영권·소수지분 분리하는 '더블트랙'으로 가닥

국내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마지막 단계인 우리은행이 연내 분할 매각을 목표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장기 경기침체에서 살아남으려는 금융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제96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은 후 우리은행을 연내 분할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존속법인은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된다.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전량인 56.97%는 매각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3차례 매각 시도를 했지만 투자자 부족 등으로 모두 실패했던 터라 이번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영권 소수지분 동시분리 입찰

이날 발표된 민영화 추진 방안의 핵심은 경영권과 소수지분을 분리 병행하는 더블트랙(동시분리입찰)이다.

공자위는 다음 달 우리금융을 우리은행에 합치는 합병 절차에 들어가면서 경영권 지분(30%)과 소수 지분(26.97%)의 분리 매각을 동시에 하는 동시분리입찰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소수지분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콜옵션(call option)을 '당근'으로 제시한 점이 눈길을 끈다.

소수지분을 위한 개별 입찰은 지분의 0.5%에서 10%까지 할 수 있다. 이때 낙찰받는 1주당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0.5주의 콜옵션이 부여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콜옵션을 행사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면 되고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더블트랙 방식, 콜옵션 등은 새로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시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간다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매각, 유효경쟁이 관건

하지만 재무적 투자자를 상대로 흥행에 성공하더라도 우리은행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분 30% 매각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이번 매각은 '앙꼬 없는 찐빵'이 된다. 단순히 과거 여러 차례 이뤄진 '블록딜(주식 대량 분산 매각)'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경영권 매각은 소수 지분 매각보다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소수 지분 매각과 함께 오는 9월 매각 공고가 이뤄지고 예비입찰(10~11월), 본입찰(내년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본계약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나 새 주인이 정해진다.

현재 시장에선 교보생명이 유일한 경영권 도전자로 꼽히고 있다. 이는 2곳 이상의 입찰자가 나와 경쟁입찰이 성립되는 국가계약법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MBK파트너스 등 일부 사모펀드의 참여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은행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넘겨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다.

주인 없는 민영화를 바라는 우리은행의 반발도 풀어야 할 난제다. 노조 문제는 외환은행 매각 파처럼 두고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금융권 지각변동 불가피

올해 금융시장 최대 이슈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일단 큰 가닥을 잡으면서 금융권 전체의 인수합병 발걸음도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우리투자증권을 손에 넣은 농협금융지주는 이달 말까지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KB금융지주 역시 LIG손해보험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함께 BS금융과 JB금융도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아란기자 clive@203@metroseoul.co.kr

SNS로도 '119 긴급연락'

서울시와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카카오톡 등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SNS에 '119 긴급연락' 메뉴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월호 참사에서 일부 학생이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했을 때 선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소방 관계자가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하지 못했던 점에 착안,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카카오톡, 라인 등 SNS 업체들과 협의해 연말까지 SNS상 '119 긴급연락' 메뉴를 만들어 재난 때 누르면 대화방이 자동으로 개설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아이디어를 낸 서울시 도시안전실 관계자는 "소방서도 대화방을 보면 앞뒤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에서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SNS 업체들의 시스템 기술 여건과 수익성 관련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다. 본부 관계자는 "모바일 화면이 워낙 작아 메뉴 하나를 더 넣는 게 쉽진 않다"며 "기업 입장에선 수익성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준기자 mk m@

6·25 전사자 합동 안장식 신원이 확인된 6·25전사자 국군유해 5위의 합동 안장식이 23일 국립 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군 장병들이 유해를 묘역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문창극 거취 여전히 안갯속

靑 '자진 사퇴 설득 중'… 文 '명예 회복 강한 의지'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거취가 여전히 안갯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23일로 사흘째를 맞았지만 이날까지 '임명동의안 재가냐, 지명 철회냐, 자진 사퇴냐' 등의 선택지 가운데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여당은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나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창성동 별관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오늘 아무 할 말이 없다.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21일 이후 다양한 루트를 통해 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명예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가 끝내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재가 또는 지명 철회의 따다른 선택에 내몰릴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한다.

재가의 경우 국회 본회의 인준이 난망해 보인다는 점, 지명 철회의 경우 청와대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원치않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정기자 h@metroseoul.co.kr

배려 없는 '진짜사나이' GOP편

기자 수첩
김지민
<연예스포츠부 기자>

MBC '일밤-진짜사나이'가 지난 21일 터진 GOP 총기 난사 사고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진짜사나이'는 22일 방송에서 경기도 연천 5사단 열쇠부대 GOP 이야기를 담았다. MBC 측은 결방 대신 "피해자와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이런 저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군 장병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 후 방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본 방송은 '4월 중순에 촬영됐다'는 자막을 내보냈으며 GOP 경계 근무 모습은 방송 초반에만 등장하도록 짧게 편집했다. 나머지 분량은 태권도 승급 심사와 체육 외박 준비 이야기를 담았다.

이는 방송을 번나적 앞둔 상태에서 터진 사고에 제작진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것이었다.

하지만 헨리가 GOP 경계 근무용 저격 장비를 받고 스나이퍼 역할에 빠져 장난을 치는 모습과 그 아래로 'GOP헨스나이퍼 타임 이라' 자막은 백번 이해를 한다고 해도 전파를 타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

'진짜 사나이'의 헨리는 게임 속 군인을 꿈꾸는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다. 'GOP 스나이퍼'는 이제까지 헨리가 보여줬던 캐릭터에 어울리는 자막이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했다면 절대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제작진은 이날 예정된 녹화도 취소했다. 출연진과 군인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알제리 경기를 응원하는 모습을 녹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긴급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처럼 제작진은 방송 한꺼으로 노력을 기울이며 시청자에게 여러 차례 양해를 구했지만, '무개념'의 한 줄 자막이 남긴 씁쓸하고 불편한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이다.

원구성 합의 함박웃음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합의하고 활짝 웃으며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구성 협상 타결 국회 정상화

국정감사 2차례 분리

여야는 23일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국정 감사를 2차례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만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 그동안 원구성 지연으로 공전됐던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년에 1차례 열었던 국정 감사는 8월26일~9월4일, 10월1~10일 2차례로 나눠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예산결산특위는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도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1회씩 개최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 관계 발전 특위'를 신설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특위', '동북아 역사왜곡대책 특위', '지방자치발전 특위', '지속가능발전 특위', '창조경제 활성화 특위'는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소속 의원 3명씩을 지명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를 구성,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북 어민 지난주 또 표류 구조… 귀순 의사

● 최근 북한 어민들이 동해 먼바다에서 표류중 우리 측에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동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고장난 소형 오징어잡이 어선에 탄 북한 주민 1명이 구조돼 귀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23일 밝혔다.

새누리 소장파 "전대서 줄세우기 안돼"

● 새누리당 조해진 소장파 의원들이 23일 후보간 줄세우기와 네거티브 캠페인을 자양할 것을 촉구했다.

조해진 의원 등 21명은 이날 7·14 전당대회를 통한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혁신전대추진모임'을 결성하고 이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재보선 공천위원장 주승용

● 새정치민주연합은 주승용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30 재보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을 23일 완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주 사무총장을 비롯해 총 11명의 내부·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천위 명단을 의결했다.

日대사 불러 '고노담화 흔들기' 항의

정부는 일본의 '고노담화 흔들기'에 대해 23일 일본대사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외교부 청사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은 온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이라며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를 흔들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실추하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 일본 정부가 작성 경위 검증을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의미를 훼손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을 계기로 국제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유병언 부인 배임 혐의 구속영장

유씨 일가 중 처남·친형 이어 세번째 청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주말 긴급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인 권윤자(7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권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유씨 친인척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씨의 형 병일(75)씨에 이어 세번째다.

권씨는 장례지원을 관계사 중 하나인 대구 소재 방문판매 회사 '달구벌'의 대표를 맡으면서 남편 유씨와 장남 대균(44)씨 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권씨를 수행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조모(71)씨와 김모(62)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후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체포된 유씨 동생 병호(62)씨에 대해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곤제역 승강장이 23일 한산한 모습이다. 오전 11시 30분께 경전철 의정부지역에 낙뢰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단전 사고가 발생,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1시간 40여 분간 중단됐다. /연합뉴스

의정부경전철 한때 운행 중단

"낙뢰로 인한 단전이 원인"

23일 오전 11시 30분께 낙뢰로 추정되는 단전이 발생해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경전철 측은 "낙뢰에 따른 한전 변전소 단전으로 경전철 운행이 중단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시민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의정부경전철은 한전이 의정부 장암동과 금오동 양쪽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운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기로 되어 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오후 1시 13분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이현우기자 cyclone@

서울 도시가스 5년만에 인상

가구당 한달평균 280원↑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부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1㎥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3.80원(약 8%) 인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인상은 2009년 이후 5년만이다.

시는 2009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을 1㎥당 2.51원 인상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38원, 0.30원 인하했으며 이후에는 동결했다.

공급비용 조정으로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350원, 한달 280원이며 인상률은 0.33%다. 인상 요금은 8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시는 "에너지 절약 운동과 기후변화로 가스 사용량이 감소해 공급비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도시가스 고객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과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할인 확대를 위한 비용도 인상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덕성여대, 인재육성 MOU

덕성여대는 최근 대학본부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 자원 공동 활용과 공동연구 ▲지식 정보의 상호 교환과 심포지엄·세미나 공동 개최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공동 활용 및 인적 교류 ▲홍보·전시·교육 등에 관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총체적 부실… 軍 왜 이러나

총기난사 임 병장 자해 뒤 체포… 작전 중 오인사고까지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무장탈영한 임모(22) 병장 사건을 통해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먼저 임 병장이 GOP근무에 부적격한 A급 관심병사였다가 B급으로 조정된 이후 GOP에 투입됐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군 당국의 관심병사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됐다.

이어 군 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초동대응부터 검거작전, 사망자·부상자 처리 등에서 문제점을 보였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1일 오후 8시15분이었지만 22사단이 최고 수준의 비상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은 2시간 넘게 지난 10시 12분께였다. 수류탄과 실탄 60여발을 소지한 채 무장탈영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을 한 셈이다.

이후 군 당국은 9개 대대 3500여 명의 병력과 헬기와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수색작전을 펼쳤지만 임 병장은 수색망을 뚫고 10㎞나 떨어진 강원도 고성 명파리 부근 야산까지 이동했다. 22일 오후 11시께 포위망에 접근했던 임 병장과 조우했음에도 검거에 실패했다.

밤샘 대치 이후 23일 이어진 체포작전 과정에서도 아군간 오인 사고로 수색팀 소속 진모 상병이 우측 팔에 총상이 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포위망이 좁혀지고 장병들이 긴장상태라서 오인사격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우리 군의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오전 내내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콘도 500m 서쪽에서 군과 대치하던 임 병장은 부모와 형이 계속 투항을 권유했지만 결국 오후 2시55분께 자신의 소총으로 자해를 시도한 뒤에야 붙잡혔다.

임 병장은 의식은 있지만 출혈이 심한 상태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됐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임 병장 긴급 후송 동료 병사들을 살해한 뒤 무장탈영해 군 수색병력과 대치하던 임 병장이 자살을 시도한 뒤 체포됐다. 군 구급차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제진검문소를 통과해 인근의 헬기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세 이하 절반이 사교육

10명 중 3명 학습지·1명 학원 다녀… 비용만 2조2천억원

우리나라 만5세 이하 영유아 10명 중 3명은 학습지를 풀고, 1명은 시간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 황미선 부연구위원은 23일 '육아정책 브리프'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국 100개 지역 2515가구의 만5세이하 영유아 363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아이들 중 56.1%와 23.5%는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번 분석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육비는 공교육, 나머지는 사교육 지출로 분류됐다.

사교육 중 학습지 이용률이 31.6%에 이르렀고, 10.8%는 시간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문화센터와 월연인, 개인 그룹지도를 통해 따로 교육받는 비율도 각각 6.4%, 4.2%, 2.2%로 집계됐다.

사교육 서비스 종류별 월평균 비용(만0~5세)은 ▲반일제 이상 학원 59만9600원 ▲개인·그룹 지도 12만8200원 ▲시간제 학원 9만2800원 ▲학습지 6만3100원 등이었다. 공교육의 경우 어린이집 월 보육비가 8만3000원, 유치원 교육비가 16만7000원 정도였다.

또 우리나라 연간 총 보육·교육비는 4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45.1%(약 2조2000억원)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에 흘러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윤다혜기자 yeh@metroseoul.co.kr

소나기 | 가리릴까 23일 개장한 서울 서초구 양재천 야외수영장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자 어린이들이 수영복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관련 Q&A

h well
국민건강보험
서울지역본부

Q1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도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진료를 하지 않는 이유는

A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제4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수진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 개인징수금으로 환수했으나, 보험재정 누수방지 등 올바른 건강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부득이 진료 전으로 제한하게 됐다. 이는 가입자들의 공동재산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Q2 자격상실되었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나

A 자격상실 된 경우는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격 소급 취득 시에 진료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건강보험증 등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불받는다.

Q3 무자격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하여 청구하였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

A 진료시 자격확인이 안됐거나 착오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경우 진료비 지급 전에 공단에서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 지급을 제한한다. 나만 반송된 건에 대해 자격이 확인됐을 경우 심사평가원으로 재청구하면 된다.

/윤다혜기자

휴가철 인천공항 '명품가방' 몸살

작년 세관 적발 하루평균 200건… 5년 새 7배

여름 휴가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신고, 통관제한 등의 이유로 세관에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명품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은 "2009~2013년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8월 15일 여행객으로부터 유치한 주요 물품 9만9399건 중 명품가방이 총 2만7297건(27.5%)으로 가장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이 분류한 주요 물품은 가방, 시계, 액세서리, 벨트 등 기타명품, 의약품, 주류, 담배, 화장품·향수류다.

세관에 유치된 명품가방 수는 2009년 1436건이었으나 2010년 4130건, 2011년 4977건, 2012년 7632건에 이어 지난해 912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명품 시계와 벨트 등 기타 명품 유치 건수는 6167건이었다. 이 역시 500건(2009년)에서 1137건(2010년), 1243건(2011년), 1486건(2012년), 1791건(2013년)으로 꾸준히 늘었다.

명품류 외에 주류(2만7065건), 불법의약품(2만5780건), 담배(5651건), 화장품·향수류(1652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고가 명품류 등의 미신고 적발·유치가 늘면서 세관이 징수한 가산세 역시 2009년 5500만원에서 2010년 3억2600만원, 2011년 5억6900만원, 2012년 11억8300만원, 지난해 20억6200만원 등으로 늘었다. /김보른기자

사랑 나눠요 23일 오후 은서시 동구 송림동의 한 골목에서 대신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자원봉사자들이 저소득층 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쌀과 구호품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

7·9급 경쟁률 61 대 1

서울시가 2014년도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28일 시행한다.

인터넷 원서접수 결과 총 2123명 모집에 12만9744명이 응시해 평균 6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 단위는 보건9급으로 10명 모집에 2568명이 응시해 25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27명을 뽑는 일반행정9급에는 7만5559명(103.9대 1)이 응시했고, 71명을 모집하는 일반행정7급에는 1만1688명(164.6대 1), 158명을 뽑는 세무9급에는 9134명(57.8대 1)이 지원했다.

일자리 공유를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구분모집에는 124명 선발에 3336명(26.9대 1)이 신청했다.

응시자들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오전 9시 2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김보른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결심공판

증거 추가제시 내달로 연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결심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3일 댓글 선거운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7월 14일로 결심공판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30일 검찰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증거 등에 대해 추가로 제시할 의견이 있다고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서증조사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김보른기자

노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서울시 노원구는 삼육대학교와 함께 '노원 어린이 영어캠프 및 과학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희망자는 23일부터 7월7일까지 홈페이지(http://www.nowon.kr) 등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서울시 중랑구가 24일 구청 6층 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등이다.

성동, '대포차 단속반' 운영

서울시 성동구는 올해 1월부터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대포차 단속 전담반'을 투입, 단속한 결과 이달 현재까지 대포차 60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60대 중 44대는 수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6대는 추가 위법 행위가 있어 수사 중이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global

metro Russia

Петербуржцы могут вызвать физкультмобиль

metro Brazil

Copa criou 1 milhão de empregos, diz governo

월드컵으로 일자리 100만개 창출

브라질이 2011년 이후 월드컵을 통해 관광 분야에서만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형성된 일자리의 15%에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브라질은 월드컵을 통해 67억 헤알(약 3조 77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둬 전체 GDP의 3.15%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는 관광객들이 브라질을 방문해 사용한 항공,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환산한 것이다.

metro Mexico

registro ya es gratuito e inmediato en el país

신생아 '투명인간' 사라질까

앞으로 멕시코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는 세상에 나오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신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최근 멕시코 의회는 신생아 출생신고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부모가 비용 문제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가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멕시코의 신생아 관리는 특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멕시코에서 출생 신고에 드는 비용은 25페소(약 2천4000원) 정도다.

'미녀 체조車' 등장 인기몰이

페테르부르크시 차량 이동 무료 강습…학생 등 수백명 참여 건강 챙겨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시에 미녀들이 탑승한 '체조차'가 등장해 화제다.

흥겨운 음악소리와 함께 체조차가 등장하면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든다. 체조차 밖으로 아름다운 강사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시민들은 열렬히 환호하며 몸풀기를 시작한다.

체조차 프로젝트를 기획한 빅토르 안드로노프 대표는 "페테르부르크 시내 여기저기를 방문했다"며 "특히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를 자주 찾는다"고 밝혔다.

안드로노프는 "체조차의 인기가 대단하다. 매번 100여 명 이상이 운동에 참여한다"며 "얼마 전 방문한 제366 리체이(학교)에서는 400명이 모였다"고 했다. 그는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체조 동작을 무료로 강습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조차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페테르부르크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안드로노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체육인이면 누구든 체조차에 탑승할 수 있지만 유독 미녀 체육 지도자들이 많다"면서 "미녀 강사 덕분에 체조차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궁전광장에서 처음 시작된 무료 체조 강습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체조차를 만들게 됐다"며 "시민들에게 들려줄 흥겨운 노래와 작은 트럭 한 대면 페테르부르크시 전체가 들썩인다"고 말했다.

체조차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곧 다가올 국제 청소년의 날(8월 12일)을 맞아 대규모 체조 강습을 준비하고 있다. 페테르부르크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체조를 하는 플래시몹 형태의 이벤트다.

안드로노프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많은 시민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다같이 건강 미인·미남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안나 갈치코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France

결혼식 평균 비용 1145만원 '합리적'

프랑스에서 결혼식 평균 비용이 8257 유로(약 114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결혼식에 드는 비용은 손님을 70명 초대할 경우 8257 유로다.

올 여름 결혼을 앞둔 32세 남성 시릴 은 "결혼식을 위해 1년 반 전부터 돈을 모았다. 우린 모두 좋은 직장이 있지만 결혼식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지금까지 여행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커플은 9개월에 걸쳐 결혼식 준비를 하며 85%는 저금해두었던 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나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35세 이상일 경우 결혼식 비용은 더 적게 쓰는걸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살수록 비용이 줄어들었다.

또 평균 결혼식 비용에 대해선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이 합리적인 편이라고 답했으며 예산을 따로 제한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혼식 비용에는 하객들을 위한 식사, 결혼식장 대관비 등이 포함된다. 시릴은 "결혼은 두 가족이 함께하는 인생에 단 한번인 행사다. 처음부터 계획한건 아니었지만 결혼식 다음날 투드브릭을 준비해 하객들에게 깜짝 브런치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론 응답자의 33%가 축의금을 활용할 것이라 답했으며 36%는 하객용 선물을 간소하게 할 것이라 답했다.

한편 하객의 경우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평균 138 유로(약 20만원)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한 커플에게 주는 선물로는 식기세트, 유리잔, 청소기, 속옷 등이 있었으며 프랑스인은 낭만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엘리 베아예 기자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코스닥
1974.92 (+6.55)	529.36 (-6.73)

금리	환율
2.69 (+0.03)	1019.50 (-2.00)

뉴스&뉴스

100주 연속 PC방 1위

● 라이엇 게임즈의 글로벌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가 PC방 점유율 순위에서 100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롤은 게임 전문 리서치 사이트인 '게임트릭스'가 집계한 PC방 점유율 주간 순위 기준으로 2012년 7월 23일 1위를 기록한 이후 100주 연속으로 자리를 지켰다.

이는 국내 온라인게임 역사상 세 번째로 수립된 대기록이다. 앞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13년 11월 7일 게임트릭스 사상 최고의 일간 점유율 기록(45.06%)을 세운 바 있다.

지난 100주 간 라이엇 게임즈는 총 19개의 '챔피언(캐릭터)'과 112개의 챔피언을 꾸밀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인 '스킨'을 출시했다. 또 동안 기간 45번의 업데이트를 평균 14.8일 간격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박성훈기자

나도 카톡 연구원 돼볼까

● 내가 테스트한 기능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탑재된다.

카카오는 사용자가 직접 카카오톡 기능의 개발 단계에 참여해 유용성을 검증하는 '카카오 실험실'을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 실험실에서 다뤄질 첫 테스트 과제는 '키워드 알림 on/off'와 '안 읽은 채팅방 위로 정렬 on/off' 설정 기능이다.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4.5.0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실험실에 입장할 수 있다. 애플의 iOS 버전도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국명기자

'운명의 26일'…은행 임원 좌불안석

제재심의위 징계수위 결정…내달 연기 가능성도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있어서다.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현직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의 진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20여개 금융사와 200여명 금융권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 등의 최고경영자(CEO)와 현직 임원들도 수십여명 포함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일 은행과 카드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임 회장과 이 행장 등에게 사전 통보한 징계 수위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충분한 소명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를 다음달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제재 대상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우선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크게 ▲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내부 통제력 상실 등으로 나뉜다.

특히 임 회장은 1억여 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국민카드에서 5000여만 건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분사 당시 넘어간 1000여만 건의 국민은행 고객 정보도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임 회장이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와 관련,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건호 행장은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 행장은 도쿄지점 부실이 불거진 기간에 리스크담당 부행장을 맡았다. 당시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주는 등의 수법으로 62차례에 걸쳐 약 1467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내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은행 CEO로서 심각한 내부 갈등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한 점도 중징계 사유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내부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이 행장의 포괄적 책임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소명 자료가 방대하는 점을 들어 일부 제재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min1@metroseoul.co.kr

이제 UHD로 보세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양휘부 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함께 개최한 케이블 초고화질(UHD) 상용서비스 '국회 시연회'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행사 도우미들이 스마트 헬스 케어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현대오일뱅크·SK, 알뜰주유소에 기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전국 1062개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다.

농협과 한국석유공사는 23일 알뜰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할 1부 사업자(공급자)가 직접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방식)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오일뱅크를, 2순위 협상대상자로 SK에너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협과 석유공사는 이들 정유사와 협상을 벌여 중부권(서울·경기·강원·충청지역)과 남부권(경상·전라지역)으로 나눠 공급업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3년 연속, SK에너지는 처음으로 알뜰주유소 납품 기회를 갖게 됐다. 협상 우선권이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지금처럼 중부권에 계속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부 시장은 자영 알뜰주유소 433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160개, 농협 알뜰주유소 469개로 구성돼 있다.

두 정유사가 낙찰자로 최종 선정되면 오는 8월부터 1년간 이들 주유소에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약 12억ℓ 공급하게 된다.

알뜰주유소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1년 말 도입됐다. 1차연도(2011년 12월~2013년 3월)에는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2차연도(2013년 4월~2014년 7월)에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이 알뜰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했다.

이번 3차연도 입찰에는 GS칼텍스, 에쓰오일을 포함한 정유 4개사가 모두 제안서를 제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김두탁기자 kdt@

상의·전경련 등 내수살리기 앞장

경제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와 경기부진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살리기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부터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벌인다.

대한상의는 23일 전국 15만 회원기업에 "임직원이 여름휴가를 국내 관광지에서 보내도록 독려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휴가기간을 이용해 지역별 명소와 특산 축제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해외연수, 세미나 등 행사를 가급적 국내에서 시행해 지역 소비경기 촉진과 세월호 사고로 여가 활동이 줄어들면서 타격받는 지역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시설을 활용해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은 리움미술관, 호암미술관 등 입장료 할인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금호아시아나는 직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비 콘서트를 개최하며, 신세계는 백화점 각 점포별 문화홀에서 마티네 콘서트를 열고 있다. CJ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투자한 공연과 상영 중인 영화의 입장료를 쿠폰 또는 영화관의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

/조재근기자 kzz18@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 3
독자센터	(02)721-9881

2002년 1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56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17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중 지난해 국세청에 계좌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탈루 소득을 외국 은행 계좌 등에 숨긴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비거주자로 위장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편법 운영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해외에 숨긴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민지기자 minji@

주식펀드 올들어 3조 넘게 이탈

가치주 선호는 여전'

올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 시장에서 3조원 넘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가치주 선호 현상은 여전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지난 1일 기준 3조2214억원 줄어들었다.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웃돌 때마다 대거 쏟아져나오던 환매 행렬은 차츰 잠잠해지고 있으나 매주 평균 200억~500억 수준에서 자금이 순유입되거나 순유출되는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치주 선호 현상이 계속됐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결과 최근 6개월간 가치주 펀드에는 테마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1조1372억원(20일 기준)이 순유입됐다.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이 기간에 자금이 많이 몰린 유형은 롱숏펀드(8026억원)와 배당주펀드(5559억원) 정도다.

특히 지난해 가치주 펀드와 함께 인기를 끈 롱숏펀드가 올 들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것과 달리, 가치주의 강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비오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어들 두 유형에는 1년 넘게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그러나 지난해 평균 8%의 수익을 내던 롱숏펀드의 경우 올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지난 5월부터 자금이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1개월간 롱숏펀드에서는 2141억원이 순유출됐으나 가치주(3082억원)의 자금 유입 행렬은 이어졌다.

반면 가치주 펀드의 성과는 만족적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가치주 펀드의 수익률은 평균 2.49%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롱숏펀드(-0.12%)와 대조적이다.

다만 가치주 펀드 상품 중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와 신영마라톤펀드 등은 인기 몰이를 지속했으나 KB밸류포커스증권자펀드의 경우 올 들어 4010억원가량 큰 폭의 자금 유출이 일어났다.

증시 전문가들은 가치주 중에서 특정 부문에 집중하는 소위 '스타일'이 없는 상품들이 최근 탄탄한 면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비오 연구원은 "기업 성장세나 밸류에이션과 같은 개별 요소에 집중하거나 '여성소비' 등과 같은 특정 카테고리를 가진 가치주 펀드 상품의 성과가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향후 펀드 시장의 무게 중심이 가치주 위주에서 수출주 중심의 대형주로 서서히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은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6월 들어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도로 돌아서는 등 향후 경기 회복으로 주식시장 상승 기대감이 커진다면 대형주 펀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장마용품 준비하세요 23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백화점 SPA 전문관에서 모델들이 레인 슈즈와 우산, 방수 가방 등 다양한 우천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아이파크몰 제공

"사기대출 조심하세요"

금감원 서류 조작 주의보

금융당국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서류조작 사기대출(일명 작업 대출) 광고가 퍼지자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23일 발령했다.

작업 대출은 불법 업자가 무직자 등 대출 부적격자의 소득, 재직, 통장 거래내용 등 개인 정보를 위조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서 금융사에서 대출받도록 해주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인터넷 광고게시글 470개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작업 대출 광고를 이용하면 불법 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마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8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을 뺏길 수 있다. 작업 대출은 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 대출이므로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또 불법 업자가 확보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유통시켜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

금감원은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계에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구했다.

금융사에는 대출 취급 시 재직 증명, 소득 증명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했다. /김현정기자

"16강 경우의 수를 따져라"

마케팅업계 "홍명보·손흥민 등 홍보 효과" 우려

우리나라의 브라질 월드컵 16강 자력진출이 어려워지면서 국가대표팀을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23일(한국시간) 알제리전에서 4대 2로 패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릴 H조 3차전에서 우리나라가 벨기에를 크게 이긴다는 가정 속에 알제리와 러시아가 비기거나 러시아가 이긴 후 골득실 차까지 가려야 조 2위로 16강이 가능하다.

국가대표팀을 광고 모델로 쓴 기업들은 경우의 수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이다.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이 좌절되면 후속 광고뿐 아니라 기존 마케팅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중에서는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최다 광고 출연을 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삼성 커브드 UHD TV와 LG UHD TV의 광고 모델이다. 에어컨, 의류, 제약, 음료 등 다양한 산업군의 모델로도 활동 중이다. 업계 대우는 A급으로 알려졌다.

모 기업 국내 마케팅 담당자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목표가 당초 8강이었고 지난 월드컵 때 이미 16강 진출 경험이 있어 최소 16강까지 마케팅 전략을 짜놓은 상황"이라며 "솔직히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을 못하면 월드컵 마케팅이 종료돼 업무적으로는 편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불편하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 벨기에전까지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 여부를 놓고 기업들 표정이 미묘한 가운데 축구 게임 장르는 월드컵 대목을 맞았다. 손흥민을 홍보 모델로 내세운 넥슨의 '피파 온라인3'는 지난 21일 PC방 게임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전작 '피파 온라인 2'부터 모델로 활동했다.

최진영 넥슨 홍보팀 대리는 "점유율이 큰 폭으로 뛴 데에는 월드컵이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우리나라의 16강 탈락을 가정하긴 싫지만 월드컵 성적과는 무관하게 진행 중인 프로모션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윤휘기자 unique@metroseoul.co.kr

적립 포인트로 올레TV 보세요 올레TV모바일은 광고 메시지를 보면 VOD를 시청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TV포인트 무료충전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레tv모바일 제공

현대차·포르쉐, 초기품질 '최고'…스바루는 최하위

메르세데스 벤츠는 S클래스·CLA 끝지로 추락

올해로 28년째 실시되고 있는 JD파워의 초기품질지수(IQS) 조사에서 각 브랜드의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프리미엄카를 제외하고 일반 승용차 부문에서는 한국차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소형차에서는 현대 엑센트, 콤팩트카(준중형차)에서는 현대 엘란트라(아반떼), 대형차는 기아 K7이 각각 1위로 뽑혔다. 중형차는 한국에서도 생산되는 쉐보레 말리부가 1위를 기록했다.

프리미엄 부문에서는 포르쉐가 돋보였다. 콤팩트 프리미엄 스포츠카에서 포르쉐 박스터가, 중형 프리미엄 스포츠카에서 포르쉐 911이, 대형 프리미엄카에서 포르쉐 파나메라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중형 프리미엄카의 1위는 현대 제네시스다.

반면에 세계 최고의 차로 꼽히는 메르세데스 벤츠는 체면을 구겼다. E클래스는 중형 프리미엄카 부문에서 최하위 어큐라 RLX, 캐딜락 XTS 바로 위에 자리하며 하위권에 머물렀고, S클래스는 대형 프리미엄카 부문에서 최하위에 그쳤다. 또한 콤팩트 프리미엄카에서 CLA는 인피니티 Q50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다.

브랜드 별로 보면 포르쉐와 현대, 쉐보레가 3가씩 이름을 올렸고, 포드와 GMC 마쓰다, 기아, 인피니티가 2개 모델을 리스트에 올렸다.

업계 품질 평균치 이하인 별 두 개를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스바루로 총 4가를 기록했다. 포드와 지프, 미쓰비시도 3개의 모델이 나와 품질에서 나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신차를 구입한 8만6000여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차량의 고객들에게 233개 항목에 대한 초기품질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로 나타낸 결과다.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품질만족도를 의미한다.

/임의택기자 ferrari4@

최 광대역 LTE-A "비디오 LTE 시대"를 연다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 부사장(왼쪽서 세번째)이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1등 회사답게 1등 요금·서비스로 경쟁해야 하는데 불공정 경쟁만 일삼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LG유플러스 제공

"SK텔레콤, 불공정 경쟁 멈춰야"

LG유플러스, '광대역 LTE-A' 상용화 지연 불만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 부사장은 "SK텔레콤이 1등 회사면 1등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해야 하는데 불공정한 경쟁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주식 부사장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대역 LTE-A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삼성전자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 스마트폰을 26일 출시하기로 협상을 마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사장의 발언은 광대역 LTE-A 서비스 준비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출시 지연으로 SK텔레콤에 비해 서비스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광대역 LTE-A 서비스는 기존 LTE에 비해 3배 빠른 최대 225Mbps 속도를 지원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단말기만 출시되면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지만 전용 단말 출시가 늦어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5 LTE-A를 19일 출시하며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밀어주기 단말기 출시가 늦어진다고 언급한 것이다.

최 부사장은 "SK텔레콤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에 단말기를 자신에게 먼저 주고 경쟁사에는 천천히 공급하라는 경쟁논리는 국민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며 "내가 많이 사니깐 다른데는 늦게 주라는 것은 공정경쟁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LG유플러스는 연말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4배 빠른 LTE 서비스인 '3밴드 LTE-A'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LG유플러스 고위 관계자는 "최대 300Mbps 속도를 제공하는 3밴드 LTE-A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먼저 출시하더라도 지원 단말기 확보가 우선돼야 먼저 상용화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처럼 경쟁사 때문에 제조사와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면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더라도 상용화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기아차, 올 뉴카니발 2720만~3580만원

기아자동차가 올 뉴 카니발의 가격을 확정하고 23일부터 본격 출시한다. 이날 공개된 가격은 9인승 모델이 2990만~3630만원, 11인승 모델은 2720만~3580만원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전국 기아차 지점을 통해 사전계약에 돌입한 올 뉴 카니발은 계약 실시 20일(영업일 기준)만인 지난 20일까지 1만2000대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600대씩 꾸준히 계약된 것으로, 기아차의 인기 차종인 모닝의 사전계약대수 500여대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이다.

특히 올 뉴 카니발은 월간 판매 목표인 4000대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이는 올해 5월까지 판매된 국내 미니밴 월평균 판매대수 4000대의 2배 이상 상회하는 계약 실적이다.

기아차는 올 뉴 카니발의 성공적인 신차 붐 조성을 위해 앞으로 고객 시승 이벤트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 뉴 카니발은 기존의 미니밴 고객들뿐만 아니라 레저와 캠핑을 지향하는 가족단위 고객들에게도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의택기자

수도권 분양 죽 쑤는데 지방은 호황국면 확산

올해 아파트 분양 시장 모습은 수도권과 지방이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분양물량은 2014년 1~5월 총 10만 7354세대이며 2013년 1~5월 7만 3277세대보다 3만4077세대가 증가했다.

2008년~2014년 5월까지 청약경쟁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1월~5월 청약접수가 끝난 아파트 중 42.3%가 1순위에서 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1순위 청약마감 비중은 2009년 47.4%가 1순위 마감된 이후 가장 높다.

2014년 1순위 청약 마감 아파트가 2013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수도권은 1순위 마감 아파트가 줄어들고 지방광역시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분양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1순위 청약 마감 아파트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25.4%로 2013년 36.8%에 비해 줄었으나 지방광역시는 2013년 46.1%에서 올해 82.9%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 1순위 마감된 기타지방은 33.8%에 불과했다.

1순위 청약마감 비중 흐름만을 보면 수도권의 분양시장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광역시는 호황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2013년 판교와 위례 등판 2신도시와 강남 재건축이 분양호조를 이끌었다. 반면 2014년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업지 분양이 많지 않은 것도 분양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은 2013년 경기남부의 2기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회복되는 듯 하였으나 그 여파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자 선호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미분양 마케팅도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서지 않는 원인이다.

다만 지방 분양시장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지방분양시장을 견인하는 단기 투자 수요층이 이탈할 경우 과거와 같이 급격히 냉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호황의 이면을 늘 주의하면서 신규 아파트 청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학재기자 [illegible]

GS건설 역삼자이 조감도

GS건설, '역삼자이' 선착순 분양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GS건설 '역삼자이'가 선착순 지정계약 중이다.

'역삼자이'는 지하 3층, 지상 31층, 3개동, 전용면적 59~114㎡, 전체 408가구로 구성돼 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걸어서 5분 거리이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LG아트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자병원에 가깝다. 도성초, 역삼중, 진선여중·고, 휘문고, 단대부고 등의 명문학군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요즘 문제 되고 있는 소유부분과 관련, 2009년부터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 기준을 적용했다. 또 114㎡B형의 경우 거실 2개 면을 개방해 개방감과 통풍성을 극대화했으며, 부모와 자녀 방을 분리 배치해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했다.

아울러 거실 LED 조명을 비롯해 유리로 표면을 처리한 복엽가구와 거실 천판의 천연소재 벽면 등 지난해 3.3㎡당 4000만원대에 분양된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에 버금가는 마감재를 사용, 명품 주거 단지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분양가는 3.3㎡당 2990만~3150만원대이며 발코니 무상확장이 제공된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이다. 문의 (02)555-1601 /박선옥 기자

시공순위 오르니 분양도 '쑥쑥'

건설사 안정성·시공능력 중시… 하반기 신규물량도 주목

최근 3년 연속 시공능력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건설사들이 올 상반기 신규 분양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 눈길을 끈다.

시공능력평가 제도란 건설사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매년 순위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건설사의 안정성과 시공능력 등이 아파트 청약시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청약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다.

◆분양하는 단지마다 순위 내 마감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설립된 현대차동지그룹 계열사 현대엠코(현 현대엔지니어링)는 올 들어 공급된 2개 사업장이 높은 청약률과 함께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현대엠코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에서 2011년 23위, 2012년 21위, 2013년 13위로 뛰어오른 업체다. 지난 4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한 후 사명을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변경했다. 올해 무난하게 톱10 진입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2월 위례신도시 A3-6블록에서 선보인 '엠코타운 센트로엘'이 기타 경기지역 1순위에서 최고 40대 1로 마감됐고, 3월 대구 달성군에서 공급한 '옥포 엠코타운 더 솔레뉴'도 평균 10.5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호반건설은 호남지역 강자에서 전국구로 분양시장을 호령하는 우량 건설사로 거듭나고 있다. 2011년 49위였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지난해 24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광주 월남지구, 전북혁신도시, 천안 불당지구, 시흥 배곧신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올 들어 분양된 5개 단지 3469가구에 총 3만2807건의 청약이 몰리며 전 주택형이 순위 내 마감되는 기염을 토했다.

우미건설 역시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2011년 56위에서 2012년 47위, 2013년 45위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경산 신대부적지구, 강릉 유천지구, 평택 소사벌지구 3곳에서 분양해 사실상 완판 행진을 벌였다.

◆하반기 상반기 열기 이을 지 주목

이들 건설사들의 상반기 물량이 조기 완판됨에 따라 하반기 신규 분양 성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합병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투시도.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7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에서 '남양주 화도 엠코타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첫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1602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현재 토지 100% 확보를 마쳤다.

서울 마곡지구 A13블록 '마곡 엠코타운'도 하반기 분양이 예정됐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역세권 단지로, 전용면적 59~84㎡ 1223가구로 이뤄졌다. 또 경기도 용인시 서천 택지개발지구 5블록에서도 '서천지구 엠코타운' 분양을 준비 중이다.

이외 호반건설은 다음 달 위례신도시와 천안 아산탕정지구 등에서 신규 분양에 들어간다. 우미건설도 9월 구미 확장단지 1225가구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 호미지구, 천안 아산탕정지구에서 새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소통 콘서트, 캠핑전시회, 영화상영…

포스코건설 이벤트 눈길

포스코건설의 주택문화관 '더샵 갤러리'가 풍성한 행사와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포스코건설(대표 황태현)은 오는 25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더샵 갤러리 이벤트 홀에서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는 스타강사 김창옥 교수를 초청, 제2회 '더샵 마음 톡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유쾌한 소통의 법칙'을 주제로 한다. 소통의 중요성과 기법은 물론 부부, 연인, 직장동료 등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과 소통을 통해 느끼는 삶의 변화를 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예대 겸임교수인 김창옥 휴먼컴퍼니 대표는 KBS 아침마당, EBS 대한민국 성공시대 등에 출연해 자기 고백적 스토리텔링 강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더샵 갤러리 앞마당에서 미니 캠핑전을 열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3~22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고객들을 위해 '미니 캠핑전'을 열었다. 더샵 갤러리 앞 광장에 캠핑장을 마련해 텐트 설치와 같은 체험의 기회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포스코건설은 주말에 일반인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최신작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매월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결혼 미루는 자녀 때문에…올해도 '축의금 품앗이'만 하다 끝?

주변 결혼식은 늘어나고, 결혼 적령기 자녀는 느긋하고 속 타는 부모들 결혼 상담 부쩍늘어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김상중씨(60세)는 요즘 걱정이 많다 부쩍 많아진 결혼식에 축의금 지출은 늘어가는데 정작 딸의 결혼 소식은 잠잠하기 때문 "3년 새 주변에 결혼식이 크게 늘었어요. 정작 우리 애는 느긋하고 걱정이 크죠."

정선희씨(58세·강남구)도 아들의 혼사에 마음이 쓰인다고 말한다 "싹싹한 며느리 예쁜 손주 본 친구들 볼 때마다 참 부럽죠. 올해도 봉투만 보내다가 지나버리면 어쩌나 싶고…"

여전히 미혼으로 남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위 '축의금 품앗이' 문화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라도 주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처럼 여기곤 한다. 하지만 초혼 연령이 높아 지고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면서 올해도 축의금만 내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며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다

가연결혼정보(주)의 박미숙 이사는 최근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결혼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한다 "올해 들어 자녀분들이 어서 짝을 찾기 바라는 부모님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된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들은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 며 결혼을 미루는 자녀를 위한 해결책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찾고 있다

이경원씨(65세·송파구)는 작년 초 딸(28세)의 결혼 상담을 위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아버지 만큼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딸은 결혼정보회사에 하루 만에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딸이 원하는 이상형과 부모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만나 지난 2월 결혼식을 올렸다

박씨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나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으면 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던 이유도, 원하는 사윗감에 대해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서였다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사위를 뒀다"며 웃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의 특별한 한정혜택!

10%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 선보여…

공기업 연구원 정성호씨(31세)는 최근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누구의 권유나 추천도 아닌 본인의 결정이었다 "바쁘게 살다보니 나이가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안에 저도 제 짝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습니다. 급하다고 아무나 만날 순 없고, 제가 원하는 상대를 찾고 싶었어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미혼남녀들이 늘고 있다

행복한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혼정보회사 찾는 법 따로 있다

어떤때면 하루빨리 짝을 찾고 싶은 마음에 결혼정보회사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조급한만 앞서 아무 회사나 선택 하는 것은 금물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결혼정보회사 가입 시 확인할 것)

공정위 표준약관 100% 준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준수 여부
회사의 규모와 공신력
서비스 품질 사후 관리 전문성 갖춘 인력 시설 등
철저한 회원 신원인증
미혼 학력 재직 등 엄격한 회원 신원인증 절차
개인정보 보안 관리
회원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 및 관리
회원 매칭 시스템
전문적인 커플 매니저에 의한 세심한 관리

결혼정보분야 3년 연속 1위 기업

꾸준히 신뢰받는 이유는

가연은 결혼정보분야에서 3년 연속 1위(2011.2012.2013랭키닷컴 기준)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 대상 및 대한민국 중소 중견기업 혁신대상 3년 연속 수상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2014 국가브랜드대상" 등 각종 상을 수상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입증했다 이렇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게 된 중심에는 가연이 개발한 독자적인 매칭서비스가 있다 1대1 원칙의 매칭에 의존했던 업계에서 꾸준히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연만의 매칭시스템인 GMS(Gayeon Matching System)를 기반으로 커플매니저 2명이 1명의 회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성혼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ISO9001 INNO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통해 그 우수함을 인정받기도 했다

가연결혼정보
(문의 080-586-5000)

"행복한 결혼을 위한 기준은 다 다르니까, 등급은 필요 없죠"

결혼정보회사는 직업이나 경제적 능력만으로 평가 하고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커플매니저는 "오직 인연을 찾아 드릴 뿐, 등급은 없다"고 말한다

가연결혼정보(주) 조인상 팀장

◇ 결혼정보회사에 등급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인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등급을 나눈다거라는 선입관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 가연에서는 등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급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배우자 상대를 찾아 드릴 뿐 등급에 따라 매칭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 등급은 없더라도 조건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결혼정보회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는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상담 시 다양한 이상형 조건들을 수집하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공무원이길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같은 종교'이길 바랄 수도 있는 것처럼 누구나 바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찾아드리기 위해 배우자 조건에 대한 상담은 필수 과정인 거죠.

◇ 결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린다면?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는 일인 만큼 의지를 갖고 노력하셔야 하죠. 결혼정보회사의 성혼 프로그램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험해본 바로는 적극적인 분들일수록 매칭 성공률도 높더라고요. 기회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무료상담전화
080-586-5000

가연결혼정보

휴가때 나에게 어울리는 헤드폰은?

DJ도 인정한 젠하이저 HD25 성능 '빵빵'
비츠바이닥터드레 '솔로2' 멋·음질 만족
한국벨킨 퓨어 AV 009 대중성에 최적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디오 브랜드들이 앞다퉈 헤드폰을 내세우고 있다. 휴가철에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기차나 비행기에서, 현지 관광지에서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할 수 있고 사람과 부대끼는 것이 바람지 않아 '집콕'을 하는 사람들은 집이나 가까운 도심 산책로에서 헤드폰을 끼지 방해받지 않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이에 각 헤드폰 브랜드는 차별화된 장점을 내세우며 여름 휴가족을 겨냥하고 있다.

독일 명품 음향 브랜드 젠하이저는 고급 알루미늄으로 만든 'HD 25'를 새롭게 선보였다. 1988년 처음 나온 이 제품은 전 세계 DJ와 음악 전문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DJ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제품이다.

HD 25는 라이브 사운드 엔지니어들의 요청으로 제작된 헤드폰으로 밥 싱클레어, 큐버트, 투자이노 등 세계적인 DJ들의 필수품으로 유명하다.

25주년 기념 제품으로서 특별함을 더한 HD 25 알루미늄은 한쪽 이어컵을 돌릴 수 있어 디자인에 더욱 편리하며 기존 범위 내에서의 공명을 최소화해 보다 선명한 사운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해준다. 47만9000원.

'닥터드레 헤드폰'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글로벌 프리미엄 헤드폰 브랜드 대명사 비츠바이닥터드레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헤드폰 '솔로' 후속작 '솔로2'를 6년만에 출시했다.

솔로2는 톡톡 튀는 컬러감과 세련된 디자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능은 더욱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헤드밴드의 중심부에서 시작되는 프레임은 기존 헤드폰 제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체공학적 곡선으로,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또 엔지니어링에 대한 엄격한 원칙과 부품 선정으로 외부에서는 나사조차 보이지 않는 견고함을 자랑한다.

음향 시스템 개선으로 기존 솔로 HD 제품보다 넓은 음역대를 만날 수 있으며 높은 해상도는 깨끗한 소리를 만든다. 유니크한 접이식 시스템과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외부활동 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29만원.

한국벨킨은 명품 헤드폰과 비교해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디자인도 뛰어난 보급형 제품 '퓨어 AV 009'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11만9000원이라는 가격 경쟁력이 눈에 띈다. 특히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와 함께 사용할 때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제작돼 영화나 TV 쇼, 게임을 즐길 때 유용하다.

벨킨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은 정장은 물론 캐주얼에도 잘 어울린다는 평가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비츠바이닥터드레 '솔로2'(왼쪽). 클럽 DJ가 젠하이저 HD25로 음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빗속에서 사진찍고 카톡하고

'물 만난' 방수 IT기기

늦은 장마가 시작되면서 IT 마니아들의 걱정은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방심하면 침수피해를 입어 소중한 IT기기가 고장 나는 불상사를 겪을 수 때문이다. IT업계들은 이런 걱정이 필요없는 '방수 IT기기'를 속속 출시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니코리아가 지난달 선보인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2'는 '외산 스마트폰 무덤'이라는 국내 시장에서 초기 예약판매 물량이 매진될 정도로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는 제품이다. 이는 뛰어난 방수방진 기능(IP58) 덕분으로 풀이된다. IP58는 수심 1.5m의 물에서 30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장마철에도 침수 걱정없이 통화하고 얕은 물속에서 207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더러워질 경우 물로 씻을 수도 있다.

올림푸스한국의 아웃도어 카메라 '스타일러스 TG-3 터프'도 침수 걱정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F2.0의 밝은 렌즈를 채용해 비오는 날에 야외에서 꽃이나 나무 등의 모습을 접사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중 15m 깊이에서의 완전 방수 기능을 갖춰 바닷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내장된 와이파이 기능을 통해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공유할 수 있어 편하다.

빗속에서 멋진 음악을 듣는 것은 어떨까.

리츠의 '네오투고'는 생활방수기능을 탑재한 블루투스 스피커다. 튀는 물에 대한 전면 방수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산 속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있는 음악을 연결해 들을 수 있다. 한손에 잡히는 컴팩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가철 바닷가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서국성기자 kmtoo@

소니의 엑스페리아 Z2

올림푸스의 스타일러스 TG-3 터프

"소호 사장님들 통신요금 할인 받으세요" KT가 우리카드와 손잡고 소호 외씨 대표들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만원의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있는 '올레 CEO 우리카드'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KT 제공

"내 사전에 오타란 없다"

이스트소프트 키보드앱 '알키보드' 출시

카카오톡·라인 마이피플 등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오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했다.

알약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가 안드로이드OS용 키보드앱 '알키보드(ALKeyboard)'를 출시했다.

안드로이드OS용인 '알키보드'앱은 사용자의 입력 패턴과 키 터치 위치를 분석해 다음에 입력할 가능성이 있는 키를 확대해주기 때문에 오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추천단어도 제공해 보다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두벌식·단모음·천지인·나랏글 베가 등 국내 사용자가 선호하는 7종의 입력방식과 함께 개성있는 스타일의 6가지 키보드 테마도 지원한다.

이스트소프트는 알키보드 출시를 기념해 앱을 설치하고 리뷰를 작성한 사용자 중 100명에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다음달 21일까지 진행한다.

/이국현기자

월드컵 새벽중계로 관련 제품 매출 증가

아침 대용식·숙면 유도 제품·스마트폰 앱과 액세서리 등 인기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국가대표팀이 아쉬운 1무1패를 기록한 가운데 그나마 침체되어 있던 유통업계도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브라질 월드컵은 다른 해에 비해 중계시간이 새벽과 아침 시간 때에 몰려 예상하지 못했던 업계의 상품 군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주류, 배달 식품 줄고 간편식↑

한 온라인 마켓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식사 대용 또는 간편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 및 즉석 식품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165%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대표팀의 조별예선 경기가 새벽과 오전시간에 잡혀 월드컵 대목 식품인 치킨 등 배달업계와 주류업계의 판매는 주춤하고, 반면에 아침식사대용식, 간편식품 군의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

돌(Dole)코리아 '돌 트리플바 블루베리' 와 켈로그 '스페셜K 블루베리' 등은 간식 또는 출근 준비를 하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아침식사 대용으로도 좋다.

대상의 '청정원 컵국밥' 과 풀무원 '곤드레밥' 등은 물을 붓거나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데워 먹는 간편식으로 월드컵 응원과 함께 출근 준비로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숙면 유도·피로회복 제품 인기

지난 17일 한 백화점의 수면 용품 상품군의 매출이 평소보다 22.6% 증가했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및 건강식품의 매출은 예년에 비해 11.8%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월드컵의 중계 일정으로 이른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의 숙면 유도 제품, 새벽 응원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제품군들이 이번 월드컵 기간에 인기를 얻고 있다.

유한양행의 '비타민씨 1000㎎' 등 비타민 제품과 소프라움이 출시한 '마이필로우' 등의 침구류, 로사퍼시픽 베리식스의 '3s 퍼퓸 배개향수'는 침구 전용 향수 등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 인기

이번 월드컵은 현지와의 시간차로 인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경기를 관람하는 마니아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스마트폰 시청자들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다양한 앱(APP)과 스마트폰 액세서리가 인기다.

휴먼피스의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믹스 쉘 스틱(XB-301)는 물론 LG전자가 출시한 웨어러블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 플러스', 폭스바겐이 선보인 '원풋볼 브라질 앱'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실황과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월드컵에 참가하는 32개국의 소식을 한국어를 비롯한 15개 언어로 제공받을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정영일기자 jyme@metroseoul.co.kr

변덕 날씨에 '수륙양용' 제품 인기

아쿠아슈즈 판매 8배 이상 급증하기도

6월 들어 소나기, 우박에 이어 용오름이 발생하는 등 오락가락 변덕스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여름 장마를 앞둔 데다가 맑고 흐림을 반복하는 날씨에 샌들 등 주요 여름 상품도 수륙양용형이 인기를 얻고 있다.

G마켓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동안 아쿠아슈즈 판매를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7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볍고 물이 잘 빠지는 아쿠아슈즈는 물 속에서 편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이다.

같은 기간 젤리샌들 판매도 288% 증가했다. 여름철 대표 샌들인 웨지샌들(굽 6㎝이하)이나 글래디에이터 샌들이 각각 79%, 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젤리샌들의 성장세가 더욱 눈에 띈다.

젤리샌들은 고무 등으로 제작된 샌들을 뜻하는데 비올 때나 물놀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신을 수 있다. 반면에 레인부츠 판매는 감소했다.

바람 차단 및 비가 올 때는 우의로 사용 가능한 바람막이 점퍼도 인기다. 같은 기간 바람막이 점퍼 판매는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 95%, 52% 증가했다.

옥션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샌들형 아쿠아슈즈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했다. 아동용 젤리슈즈도 일찍부터 찾는 이가 많아 지면서 155% 신장했다.

강한 자외선을 가려주고 비가 오는 날 우산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형 양산 판매가 같은 기간 35% 증가했다.

인터파크에서는 최근 잦은 날씨 변화로 인해 방수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 시키는 아쿠아슈즈·젤리슈즈 등의 판매량이 최근 일주일 동안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정영일기자

강강술래 '먹은만큼 무료포장 해피썸머'

양념구이 테이크아웃 상품 1+1 증정 행사도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무더위에 지친 고객들이 알뜰하게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여름맞이 '해피썸머 이벤트'를 벌인다.

상계점은 7월 10일까지 술래양념이나 왕양념갈비 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을 주문한 양만큼 무료 포장해 증정한다.

늘봄농원점은 같은 기간 술래강강양념/왕양념갈비/한우스페셜/한우모듬구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를, 한돈·돼지양념구이를 시키면 돼지양념을 시킨양만큼 포장해 준다.

시흥점은 내달 11일까지 주중에 매장에서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양만큼 나갈 때 동일 메뉴를 무료로 포장해주며 술래·강강 한돈·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 '1+1 이벤트'도 벌인다.

신림점도 내달 4일까지 매장에서 술래양념구이 메뉴를 2인분 시키면 1인분을 추가로 더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매장 진행 행사의 경우 해피아워 및 점식류 제외)

이달 말까지 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흑암자한돈너비아니(340g×3박스)를 반값인 1만5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10봉)'는 40% 할인된 3만6000원에 파격 할인 판매한다.

베스트셀링 메뉴인 강강양념(520g)과 돼지양념(500g), 한돈양념(500g), 한우불고기(500g)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도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청정 제주도 참기름 이마트가 제주도에서 수확한 참깨 100%만을 이용해 만든 자체브랜드(PL) 참기름인 '이마트 제주도 참기름'을 출시해 전점에서 판매한다. 이 제품은 이마트는 차별화된 차지로 제주도에서만 생산된 참깨를 대상으로 사전 수매해 기존 유명 상표 상품 대비 40%이상 저렴한 1만6800원(250㎖)에 판매된다. /이마트 제공

'몸짱 만들기' 열풍…도우미 제품은?

체지방 감소 음료 등 주목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다이어트 관련 제품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식품업계는 근육질 몸매를 위한 식품, 물처럼 마시는 체지방 감소 음료 등 다양한 다이어트 제품을 내세우며 올 여름 몸짱을 노리는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최근에는 식사를 거르지 않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면서 식사 전후로 섭취하는 다이어트 제품이 인기다.

대상웰라이프 '다이어트303'은 산소제안1, 카르니틴을 함유해 체지방 연소를 도와 지방을 감소시킨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전문 다이어트 라인 '누벨 다이어트 프램'을 출시했다. 식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이어트 프로그램 전문가가 설계한 4주 프로그램이다.

물과 같이 마실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GS25는 최근 동국제약과 손잡고 커피·레몬에이드·자몽에이드 3종으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HCA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 롯데헬스원은 체지방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마테 다이어트&스트레스케어'를 선보이고 있다.

남성용 제품도 눈에 띈다. 대상 건강사업본부 대상웰라이프는 몸짱을 꿈꾸는 남성들을 위해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L-글루타민'을 선보이고 있다.

남성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만들면서 주로 섭취하는 아미노산 제품이다. 남성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식사 대용으로 많이 섭취하는 닭가슴살도 더욱 간편한 형태로 나왔다. 하나커 '순수한 닭가슴살'은 닭가슴살을 그대로 분말화시킨 제품이다.

/정영일기자 jyme@

즐거움이 두 배가 된다!

공항철도, 휴가 시즌 맞아 출국인 대상 이벤트

공항철도가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공항철도는 9월 30일까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마친 직통열차 이용객들에게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지점 경품교환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품교환권은 출국 전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지점 안내데스크에서 1만원권 선불카드로 교환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점에서 100달러 이상을 구매하면 공항철도 직통열차 승차권(1매)과 여권지갑이 추가로 증정된다.

이와 함께 공항철도는 지난 21일 개통한 청라역에서 3일 이상 주차하는 고객에게 공항철도 청라역~인천공항역 왕복 운임(교통카드 기준 4600원)을 감면해주는 할인 이벤트를 8월 말까지 벌인다.

신공항고속도로 청라IC 인근에 있는 청라역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인천공항으로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면 고속도로와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3일 기준 1대 3만6000원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은 서울역~인천공항역을 논스톱 운행하는 직통열차 이용객에게 탑승 수속(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제주항공)과 출국심사 서비스(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면 10분 정도 빠른 출국 수속을 받을 수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

뉴발란스, 압구정 콘셉트 스토어 오픈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오는 27일 뉴발란스 압구정 콘셉트 스토어를 재오픈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강남, 홍대에 이은 국내 3번째 콘셉트 매장으로 기존에 있던 매장을 2층으로 리뉴얼 확장한다.

매장 1층에는 러닝 제품을 비롯해 뉴편진 시그니처 라인 등 야구 라인과 테니스 라인으로 구성됐고 2층에는 라이브 스타일 존과 MADE IN USA·UK 라인, 99X 시리즈 등 만나볼 수 있는 리미티드 존으로 이뤄졌다.

회사는 이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신발로만 구성된 럭키 스니커즈백을 선보이며 574부터 990시리즈까지 다양한 종류의 신발을 3만원에 내놨다.

이번 럭키 스니커즈백 이벤트는 오는 27일과 다음달 5일 양일간 진행되며 각 200개씩 총 400개 한정수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중소기업명품마루, 청년 자문위원단 위촉

코레일과 IBK 기업은행이 주관하고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하는 중소기업명품마루가 청년 VMD(Visual Merchandising) 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

위원단은 12월까지 지방역점을 포함해 향후 신설되는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 VMD 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며 중소기업명품마루는 이들에게 현장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명품마루가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에게 실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위원단과 중소기업명품마루 매장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단 위촉식은 지난 20일 코레일관광개발 본사에서 진행됐다. /황재용기자

노와이어, '가슴 큰 사람만?'

'압박감 없고 편안한 착용감' 2030에도 인기

여성들이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종일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이 브래지어 안에는 가슴을 받쳐주고 모아주는 와이어가 들어 있다.

이런 와이어로 압박감을 느끼는 여성들은 최근 와이어가 없는 노와이어 브래지어를 많이 찾고 있다.

실제로 비비안에서는 올해 12개의 노와이어 브래지어를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규모이며 해당 매출도 지난해 동기간(1월~5월 현재)과 비교해 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20대 여성들의 87.6%가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를 착용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노와이어 브래지어는 젊은 층에게는 외면 받아온 아이템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선입견이 깨지고 있다. 젊은 층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게 디자인도 변했다. 최근에는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젊은 여성들의 기호에 맞춰 장식은 없애고 색상은 연보라, 네이비, 블랙 등을 사용해 젊은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노와이어 브래지어에 대한 또 다른 선입견 중 하나가 바로 가슴이 큰 여성들에게 적합한 속옷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슴 사이즈가 크고 군살이 많을수록 와이어가 주는 압박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노와이어 브래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조언했다.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노와이어 브래지어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는 85A와 85B 사이즈였다.

하지만 비비안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노와이어 브래지어의 사이즈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는 75A와 80A 사이즈였고 볼륨감이 작은 AA컵과 A컵의 판매량이 B컵과 C컵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최근의 노와이어 브래지어는 과거와 달리 볼륨업 기능을 갖추고 있다. 와이어가 없어 컵이 옆으로 퍼지기 쉬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컵 안쪽에 촘촘한 망을 덧대어 컵을 모아주는 효과를 준 것도 특징이다.

/김학철기자 kimc0104@metroseoul.co.kr

11번가, '비키니 스타일 파티' 기획전 올해 수영복 트렌드는 트로피컬&비비드 '와일드&글램' 스포티브' 관엽질 등 몸매가 돋보이면서 색감이 강렬한 비키니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11번가가 여름 바캉스 시즌을 맞아 비치웨어 기획전인 '비키니 스타일 파티' 기획전을 다음달 31일까지 열고 신상 비키니를 포함한 100여 개 여름 패션 아이템을 최대 80% 할인해 판매한다. /11번가 제공

우기 특수 노리는 아웃도어 제품 다양

레인 코트부터 부츠까지, 습기 잡고 불쾌지수 낮춰

본격적인 장마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통업계가 장마철 특수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레인 코트 및 부츠를 비롯해 습기로 인한 불쾌지수를 줄여주는 기능성 제품들을 잇달아 선보이며 '우기'에 맞선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취향과 활용 용도에 따라 세련된 패션을 완성할 수 있는 레인 재킷 나바호를 출시했다.

여성 스타일 재킷은 캠핑 및 야외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수 재킷이다. 엉덩이를 살짝 덮은 기장으로 제작해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도 상의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다.

판초 스타일 재킷은 기하학적인 물결 프린트와 패턴으로 멋이 돋보이는 방수 재킷이다. 특히 재킷 전체에 특수 테이프를 코팅하는 심실링 처리를 해 탁월한 방수력을 자랑한다.

마모트(Marmot)는 여성용 여름 트레블 레인재킷을 국내에 출시하며 여성 공략에 나섰다.

영원아웃도어의 에이글은 장마철을 대비해 스타일을 강조한 레인부츠를 새롭게 선보였다.

미스 줄리엣 러버 부츠는 기존 4㎝ 굽은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레이스업 스타일과 패턴 등을 적용해 세련된 디자인으로 업그레이드된 게 특징이다.

내부는 기능성 나일론 소재로 라이닝으로 처리해 흡습속건 기능을 강화했고 무릎 길이와 발목 길이 두 가지 버전으로 구성됐다.

아웃도어 피버그린은 구김 방지 린넨 소재를 활용한 셔츠를 선보이며 장마철 공략에 나섰다.

린넨은 천연 소재 린넨과 폴리를 혼방한 소재다. 특히 린넨은 열을 분산시켜 착용 시 시원한 느낌을 주며 피부에 잘 달라붙지 않아 여름 장마철 습기로 인한 불쾌지수를 감소시켜준다. /김학철기자

FashionN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3
매주 수요일 밤 12시
그렇고 그런 뷰티쇼들
낚였어?
tcast
FOX
FOXlife
FX

뉴스&뉴스

북한이탈주민 후원 협약

● 다이소아성산업(회장 박정부)은 서울수서경찰서(서장 조용식)와 수서경찰서 관내 북한이탈주민 후원 사업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 회사는 3년간 3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연간 2000만원 상당의 다이소 생필품을 지원하게 된다. 또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웅걸 다이소아성산업 안웅걸 이사는 "수서경찰서와 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다이소의 후원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꿈꿈기관과 협조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힘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정혜인기자

아트 콜라보 팝업스토어

● 그리스 화장품 브랜드 코레스는 '그리스, 블루 파라다이스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신진 작가들과 함께 다음달 6일까지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다.

이태원의 갤러리 카페 '케이즈 오브 썸'에서 진행될 이번 팝업스토어는 카페 전체에 김현정, 정판현 등 신진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코레스의 전 제품을 전시한다.

이 기간 팝업스토어에서는 코레스 제품을 할인 판매하며 특히 마지막 주(6월 30일~7월 6일)에는 최대 50% 할인되는 페밀리 세일도 열린다.

또 7월 출시 예정인 신제품 '산토리니 바디로션&워시'를 가장 먼저 선보이며 매주 1회씩 뷰티클래스도 함께 진행한다. /정혜인기자

조부모가 쓰기 편한 육아용품 눈길

노인 편의 돕는 맞춤형 제품 출시 경쟁

최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에서 조부모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시간·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조부모가 육아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베페(대표 이근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25회 베페 베이비페어 등 찾은 10만563명 가운데 50대 이상 관람객은 7241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50대 이상 관람객은 2011년 4313명(3.4%), 2012년 4800명(4%), 지난해 5339명(5%) 등 그 수와 비율이 꾸준히 늘었다.

오준희 베페 마케팅 본부장은 "최근 조부모들의 편의를 돕는 맞춤형 유아용품은 물론 교육이나 문화 등 조부모 육아 관련 다양한 사업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부모는 젊은 부모들에 비해 관절이나 팔목 힘이 약한 편이다. 따라서 혼자서도 쉽게 펴고 접을 수 있는 반자동 기능과 부드러운 핸들링이 가능한 유모차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페도라 'S7'은 한 손으로 버튼만 누르면 중력을 이용해 유모차를 쉽고 간편하게 접을 수 있는 이지폴딩 시스템을 적용했다. 또 3.5cm의 넓은 와이드 프레임으로 주행 시 할머니와 아이 모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오랫동안 아이를 안고 있거나 따라다니기엔 체력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조부모들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럴 때에는 유아식탁의자 등을 활용해 조부모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베그베그 '씨에스타'는 다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아식탁의자다. 평소에는 아이가 책 읽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아기소파로 사용하고 식사할 때 분리형 식판을 달아 식탁의자로 쓸 수 있다. 7단계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조부모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거나 책을 읽어줄 수 있어 편리하다.

눈금 표시가 된 이유식 전용 냄비도 이유식을 만들기 편리해 조부모들에게 인기다. MNW 'mam 냄비'는 녹이 잘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져 비타민과 무기질 등 영양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설계됐다.

특히 냄비 몸체 내부에 이유식의 분량을 고려한 용량 눈금 표시가 그려져 있어 이유식을 처음 만드는 조부모들에게 도움이 된다. /정혜인기자 hjung0404@metroseoul.co.kr

멕시칸맛 피자 한국 피자헛은 2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광장 앞 행사장에서 멕시칸 풍미가 살아있는 신제품 '타코피자'의 출시를 맞아 고객 사전 시식 이벤트 행사를 펼쳤다. 다음달 5일 공식 선보이는 이 제품은 고소한 체다치즈 도우 위에 육즙 가득한 고기 토핑과 매콤한 할라피뇨, 바삭한 나초 크런블을 따로 제공되는 양상추와 깨끗한 살사소스에 올려 싸서 먹도록 구성됐다. /한국 피자헛 제공

안심 키워드 'W.A.S.H'로 아이 건강을…

질병 예방 세균 증식 막기 위해 손씻기 필수

고온다습한 장마철에는 기온 변화에 민감한 아이들이 세균 증식 등으로 인한 각종 질병으로부터 위협 받는다. 이럴 때는 간단한 위생 수칙만으로도 여름철 아이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수족구병, 땀띠 등을 예방할 수 있다.

◆Wash 외출 후 손 씻기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외출 후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손 씻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은 저자극 천연 보습 성분의 손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Anti-Bacterial 옷은 항균 세제로

외출 후 땀이 밴 옷은 바로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 놓거나 빨래감을 쌓아 놓으면 세균이 증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래를 미루지 말고 자주하는 것이 좋다. 또 천연 항균 효과의 유아전용 섬유세제를 이용해 아이 옷을 세탁하면 옷감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Sterilization 젖병 살균 소독

장마철에는 젖병과 같이 1차적으로 아이의 입에 닿는 유아용품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높은 습도 탓에 젖병의 세균 번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제품을 삶는 것은 번거롭고 젖병 재질의 변형·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젖병 소독기를 사용하면 좋다. 토미티피의 '전기 스팀 소독기(사진)'는 열탕소독과 같은 99.9% 살균력이 있다. 최대 6개까지 동시에 소독이 가능한 데다 6분만에 완료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Humidity 제습 통한 습도 유지

장마철의 높은 습도는 세균 번식을 부추기기 때문에 아토피 등 민감한 아기피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다. /정혜인기자

교보문고 '낭만서점' 이야기 공모전 열어

교보문고 북TV 팟캐스트 '낭만서점'에서 '짧은 이야기 공모전'을 연다.

교보문고가 주최하고 출판사 열린책들의 협찬으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원고지 30매 내외의 짧은 소설 공모전으로 7월 한 달간 접수를 받는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낭만서점이 제시하는 첫 문장 '서점에 가면 에'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해 보내면 된다.

1등 1명에게 열린책들 세계문학전집 100권, 2등 2명에게는 열린책들 베스트셀러 30권, 그리고 3등 3명에게는 잼 오스터 컬렉션 15권이 제공된다. 수상작은 북뉴스를 통해 연재되고 팟캐스트 낭만서점에서 출연자들이 낭독할 예정이다.

낭만서점의 진행자인 정이현 작가는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이번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정혜인기자

metro entertainment

변신의 귀재 '명품 조연' 예약

역린 표적 방황하는 칼날 잇따라 출연한

김대명

올 상반기 한국영화 흥행작 세 편에 빠짐 없이 이름을 올린 배우가 있다. '역린' '표적' '방황하는 칼날'에 출연한 김대명(33)이다. '변신의 귀재'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을 만큼 작품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며 충무로의 '명품 조연' 자리를 예약했다.

◆ 연기 변신의 귀재

'방황하는 칼날'에서 상현(정재영)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인 병법 섬마에 알선 업자 임태섭, '역린'에서 정조(현빈) 암살에 가담하며 암짱(정은채)을 어용한 무관 강용휘, '표적'에서 여훈(류승룡)과 태준(이진욱)을 쫓는 어리버리한 형사 규효.

김대명은 올 상반기 이 세 인물로 관객과 만났다. 그러나 눈썰미가 남다른 관객이 아니라면 이 모든 역을 한 배우가 연기했다는 걸 알아채기 쉽지 않다. 익숙하지 않은 얼굴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각각의 배역에 완벽하게 녹아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배우인 줄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많아요. 아마 세 배역이 너무 다른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는 신인인데 여러 성격의 배역을 믿고 맡겨줘서 감사하죠. '역린' 때는 말로 나오는 정은채 씨와 실제 나이가 비슷해서 그의 아버지를 실감나게 연기하기 위해 몸무게를 12kg 불렸답니다."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출신으로 지난 8년간 연극 무대에서 연기 내공을 갈고 닦았다. 연극 '귀신의 집으로 오세요'를 시작으로 '강풍의 바보' '한놈 두놈 삑구타고'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어쌔신' 등에 출연했다.

아시기 단편영화에도 얼굴을 내밀었다. 그러나 상업 영화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영화배우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2012년 개봉한 '개들의 전쟁'이다. 다음으로 '더 테러 라이브'에서 폭탄 테러범 박노규 역을 맡아 목소리 연기만으로 하정우를 극중에서 쥐락펴락 했다.

배우 인생 전체로 보면 데뷔 8년 만에 얼굴을 알린 셈이지만 영화 쪽만 놓고 보면 빠른 승승장구다.

그는 "연극을 하면서 빨리 뜨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없다. 그저 계속 하고 싶을 뿐 영화배우는 꿈꾸지도 않았다"는 생각만 했다"면서 "그런데 영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 역량에 비해 큰 역할을 맡았다. 늦은 건 괜찮은데 빨리 가는 건 실수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방황하는 칼날'의 김대명

이어 함께 호흡을 맞춘 정재영과 류승룡에 대해 "함께 연기하면서 많이 배웠다. 쌓아온 노하우나 촬영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더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덧붙였다.

◆ 감수성 짙은 배우

김대명의 연기력에는 남다른 감성과 캐릭터 분석력도 한 몫했다. 한 때 시인이 꿈이었고 그 다음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다. 지금도 틈틈이 습작을 한다고 했다. 배우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고 그동안 쉽지 못했던 감동을 처음 느꼈어요. 한석규 선배의 연기가 말로 표현하기 애매한 감정을 전달해주더라고요. 그때 작가가 아닌 배우가 되고 싶다고 결심했죠."

시나리오를 써 본 경험을 살려 현장에서 많이 소통하는 편이다. 캐릭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감독이나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표적'의 캐릭터 역시 원작에서는 강한 형사로 그려졌으나 김대명의 의견으로 빈틈 있는 형사로 바뀌었다.

"전 할 줄 아는 것도 승부욕도 별로 없어요. 연기도 오래 연기하고 싶을 뿐 거창하게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 없죠. 기대하면 실망감이 크잖아요. 그러나 연기할 때만큼은 욕 먹고 싶지 않아요. 관객이 다음을 궁금하게 하는 배우가 되는 게 작은 소망이죠."

/박한준기자 tak5427@metroseoul.co.kr
사진/김진우·와운드(NEW) 디자인/채승미

MBC '별바라기' MC 강호동

KBS2 '나는 남자다' MC 유재석

SBS '매직아이' MC 이효리

파일럿 예능프로 생존경쟁 끝났다

'별바라기' '나는 남자다' '매직아이' 편성 '연애고시' '두근두근 로맨스 30일' 식상

올 상반기 지상파3사가 도전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의 희비가 엇갈렸다. 일부 프로그램은 좋은 평가와 함께 정규 편성을 받았으며 어떤 프로그램은 단발성 기획에 그쳤다.

지난 19일 MBC '별바라기' 첫 방송은 전국 평균 시청률 4.1%(닐슨코리아 집계, 이하 동일)를 나타내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이는 지난달 1일 파일럿으로 선보였을 당시 기록한 4.2%와 비슷한 수치다. 강호동이 이끄는 '별바라기'가 목요일 오후에 편성되면서 동시간대 KBS2 '해피투게더3'의 유재석과의 대결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MBC가 '별바라기'로 강호동 카드를 내밀었다면 KBS는 유재석 카드를 뽑아 들었다.

방송 전부터 유재석의 신규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은 KBS2 '나는 남자다'는 지난 4월 9일 방송이 시청률 4.1%를 기록하며 정규 편성을 확정지었다. 파일럿 방송임에도 동시간대 프로그램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4.9%)와 SBS '오! 마이 베이비'(4.6%) 못지않은 성적을 보였다.

구체적인 방영 시기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요일로 편성되면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효리의 예능 컴백으로 화제를 모았던 SBS 토크쇼 '매직아이' 역시 정규 편성돼 다음달 8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13일 방송된 '매직아이'는 대중이 주목하지 못한 뉴스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 화제를 모았다. 특히 [illegible]날 데이트 폭력에 관한 토크에서 여성 패널들이 쏟아냈던 단어들은 과격했지만 기존 예능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소재를 시도했단 점은 신선하다는 평가다.

브라질 월드컵에 맞춰 기획된 'SNS 원정대 일단 띄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첫 선을 보인 '일단 띄워'는 SNS를 통해 얻은 정보로 브라질을 여행하는 소셜 여행 프로그램이다. 적절한 시기에 참신한 구성으로 눈도장을 찍은 '일단 띄워'는 정규 편성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모든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illegible] 시청자를 만나기는 어렵다. 연애 예능 홍수 속에 두 방송사가 나란히 선보였던 MBC '연애고시'와 KBS2 '두근두근 로맨스 30일'은 정규 프로그램이 되지 못했다.

지난달 8일 방송된 '연애고시'에 대해 MBC 예능국의 한 관계자는 "차별성이 보이지 않았다"며 "사람의 스튜디오 판도 못 했다. 정규편성은 무리"라고 못 박았다. KBS2 '두근두근 로맨스 30일'은 지난 4월 30일부터 총 3부작을 차례로 내보냈으나 2%대의 시청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파일럿에 그쳤다.

/김지민기자 sraekim@metroseoul.co.kr

동방신기가 22일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일본 전국투어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동방신기 일본서 200만 관객몰이

2014 투어 29회 마무리

그룹 동방신기가 또 하나의 신기록을 추가하며 일본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동방신기는 지난 4월 22일 요코하마 공연을 시작으로 도쿄·오사카·나고야·미야기·삿포로·후쿠이·니가타·후쿠오카·히로시마 등에서 일본 전국 투어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4 트리'를 펼치며 총 10개 도시 29회 공연으로 총 6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지난 2012년 두 멤버로 첫 일본 투어에 나선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2 톤'이 55만 명을 동원한 것에 이어 지난해 5대 돔투어와 스타디움 공연으로 진행된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3~타임~'이 85만 명, 팬들을 보다 가깝게 만나고자 아레나 투어와 돔 공연으로 펼쳐진 '동방신기 라이브 투어 2014 트리'가 60만 명을 기록했다. 일본 단독 콘서트 투어로만 3년간 200만 관객을 동원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역대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단 기간에 이룬 쾌거로 동방신기는 일본에서도 최정상 가수로 자리매김한 막강한 영향력과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한편 동방신기는 오는 8월 30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에이네이션 스타디움 페스티벌'에 출연한다.

/정의준기자

'교통사고' 공효진 촬영장 복귀

25일 일본 로케 합류 부상 투혼

교통사고로 팔 골절 수술을 받은 공효진(사진)이 25일 드라마 촬영장에 복귀한다.

소속사는 23일 "공효진이 현재 연기를 위하며 컨디션 회복과 함께 빠른 부상 회복에 힘쓰고 있다"면서 "25일 일본 오키나와 일정부터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촬영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로케는 오래 전부터 계획돼 있던 촬영으로 일정 연기는 불가능하지만 공효진의 부상 상황을 감안해 대본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촬영 또한 최대한 배우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효진은 지난 19일 '괜찮아, 사랑이야'를 촬영하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팔이 골절되고 무릎을 다쳤다.

/박진영기자

가요계 '브레인' 성시경 토론 진행

대학토론배틀 5 MC

가수 성시경이 오는 8월 30일 방송 예정인 tvN '대학토론배틀 5'의 진행을 맡는다.

지난 2010년 시작해 지금까지 500여 팀이 참가한 '대학토론배틀'은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토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대학토론배틀'엔 국내 대학을 포함해 하버드대·버클리대·북경대 등 전 세계 유학생들도 출전해 열띤 설전을 벌여왔다.

'대학토론배틀 5' 제작진은 "성시경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라디오 진행을 통해 진행능력이 검증됐으며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MC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은 '대학토론배틀5'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선배 같은 친근한 모습으로 솔직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대학토론배틀 5'는 오는 30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국내·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2명씩 팀을 구성해 출전할 수 있다. 최고 토론자로 선정된 5명에겐 총 상금 2000만원이 주어지며 CJ E&M 입사 지원시 특전을 제공받는다.

/김지민기자

한 주간 가장 주목받았던 드라마!
tvN 월화드라마
고교처세왕
코믹 오피스 활극
18세 본부장님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오늘 밤 11시 | tvN 방송
서인국 | 이하나 | 이수혁 | 이열음 연출 유제원 | 극본 양희승 조성희

다작 배우 이번에도 통할까?

지현우 '트로트의 연인'·이준기 '조선 총잡이'

다작 배우 지현우와 이준기가 올 여름 안방을 찾는다. 지현우는 2003년, 이준기는 2004년에 데뷔했다. 두 사람은 데뷔 10여 년 동안 총 8~12개 역할을 소화했다. 연기 활동을 중단한 배경이 입대라는 점도 똑같다. 1년에 한 작품 이상을 하는 두 배우의 안목이 이번에도 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S2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은 지현우의 전역 후 첫 작품이다. 그는 '파란목마'(2003), '앞게 될 거야', '올드 미스 다이어리', '황금 시과'(2004~2005)로 2000년대 상반기 드라마 시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하반기엔 '오버 더 레인보우', '메리대구 공방전'(2006~2007), '달콤한 나의 도시', '내 사랑 금지옥엽', '전하 무적 이평강'(2008~2009), '부자의 탄생'(2010), '천 번의 입맞춤', '인현왕후의 남자'(2011~2012) 등 드라마에 출연하며 틈틈이 예능에도 얼굴을 보였다.

지현우는 지난 18일 '트로트의 연인' 제작발표회에서 "다작 배우였다가 입대를 계기로 처음 쉬게 됐다"며 "조바심이 났고 연기에 대한 애착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트로트의 연인'에서 안하무인 최고 스타 장준현 역을 맡았다. 트로트에 인생을 건 최춘희(정은지)의 로맨스를 그린다. 23일 첫 방송.

이준기는 MBC '트라이앵글' 후 1년 만에 '조선 총잡이'로 돌아왔다. '별의 소리'(2004), '마이걸'(2005), '개와 늑대의 시간'(2007), '일지매'(2008)로 꾸준히 활동했다. 2009년 MBC '히어로' 출연을 마지막으로 입대했고, MBC '아랑사또전'(2012)으로 복귀했다.

열정한 수기로 활동하다 보니 상반기 작품에 자주 출연했다. 연말 시상식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 19일 '조선 총잡이' 제작발표회에서 "1년 이상 쉬지 않겠다는 주의"라며 "연말에 되면 잊혀지는 거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대중이 인정한다면 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다.

'조선 총잡이'에서 개화기에 칼을 버리고 총을 잡아야만 했던 조선의 마지막 검객 박윤강을 연기한다. 정수인(남상미)과의 애절한 사랑뿐만 아니라 화려한 액션 연기도 보일 예정이다. 오는 25일 첫 방송.

/권혜진 기자 jjsonh@metroseoul.co.kr

KBS 월화극 '트로트의 연인' 지현우

KBS2 수목극 '조선 총잡이' 이준기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의 유희열

KBS 제공

"무관심이 5년 장수 비결이죠"

'유희열의 스케치북' 5주년…"아이돌·인디 조화 고민 필요"

유희열이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이하 '스케치북')의 남다른 장수 비결을 공개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30분 방송되는 심야 음악 토크쇼 '스케치북'의 진행자인 유희열은 23일 KBS 신관 앞 카페에서 열린 '스케치북' 5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밤 11시나 더 이른 시각에 편성됐다면 대중성과 시청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케치북'은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며 "약간의 무관심 때문에 5주년을 맞이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스케치북'으로 생소한 음악인을 소개하고 싶다는 초심은 변함 없다"며 "늦은 시간이더라도 시청자가 많이 보고 실력 있는 음악인을 더 알릴 수 있도록 제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각오를 말했다.

이소라와 윤도현은 유희열의 전임자다. 두 사람은 6년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소라의 프러포즈'(1996~2002)와 '윤도현의 러브레터'(2002~2008)는 대표 가수를 만들어 내며 심야 시간대에도 큰 인기를 얻었다.

이에 유희열은 "'스케치북'을 상징하는 가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음악 시장이 아이돌과 인디로 이분화된 점도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음원 차트 1~10위 가수의 인기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며 "'스케치북'은 숨어있는 실력자와 메인 스트림에 있는 가수를 어떻게 조화롭게 출연시킬 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방송 장면

'스케치북' 5주년 특집은 오는 27일 방송될 예정이다. KBS는 대표 장수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와 장수 비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국노래자랑' 송해, 뮤직뱅크 브라-진운, '열린 음악회' 황수경 아나운서가 출연한다.

/권혜진 기자 jjsonh@metroseoul.co.kr

봉준호 첫 제작 '해무' 8월 개봉

봉준호 감독이 기획하고 첫 제작을 맡은 영화 '해무'가 8월 13일 개봉된다.

'해무'는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한 여섯 명의 선원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해무 속에 밀항자들을 실어 나르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살인의 추억', '괴물'을 비롯해 최근작 '설국열차'까지 평단과 관객을 사로 잡은 봉준호 감독이 제작에 나서고 그와 함께 '살인의 추억'의 각본을 쓴 심성보 감독이 연출을 맡아 화제가 되고 있다.

김윤석·박유천·한예리·이희준·문성근·김상호·유승목 등이 출연한다. 또 '설국열차'·'마더'의 홍경표 촬영감독, '관상'·'도둑들'의 이하준 미술감독이 참여했다.

/박진영 기자

'해무' 포스터

서울메트로 지하철영화제 공모

내달 31일까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다음달 31일까지 지하철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제5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 영화제' 작품을 공모한다.

모집 대상은 90초 이내의 초단편 영화이며,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 후보작은 국제경쟁부문 20편, 국내부문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선정하는 국내경쟁부문 6편 등 모두 26편이다. 영화평론가 등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8월 12일 후보작을 발표한다.

26편의 수상후보작은 영화제가 열리는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서울·베를린 지하철과 영화제·서울메트로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상영된다.

최종수상작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국제경쟁부문 3편, 국내경쟁부문 1편 등 모두 4편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는 서울메트로와 (사)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2011년부터 베를린지하철영화제와 함께 열리며 위상을 점차 높여 나가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시민들이 출게 타고 내리는 지하철에서도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매년 영화제를 열고 있다"며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모 방법은 릴포트(www.reelport.com)를 통해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www.smiff.kr)를 참고하면 된다.

/박진영 기자 nak0427@

metroworldcup

구멍뚫린 홍명보호 16강행 '가물'

알제리에 2-4 완패…벨기에전 이겨야 실낱 희망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2차전에서 알제리에 2-4로 완패했다.

대표팀은 23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열린 알제리와의 대회 2차전에서 전반 26분 이슬람 슬리마니에게 선제골을 내준 것을 시작으로 전반 28분 라피크 할리시, 전반 38분 압델무멘 자부에게 잇따라 골을 내주며 전반을 0-3으로 마쳤다.

한국은 전반 초반부터 알제리의 역습에 고전하며 3골을 허용했다. 그러나 후반 5분 손흥민의 만회골이 터지면서 반격에 나섰다. 후반 12분 박주영 대신 김신욱을 투입하며 공격에 고삐를 당겼다. 특히 장신공격수 김신욱은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상대 수비수를 힘들게 했다.

하지만 후반 17분 페굴리와 2대1 패스를 받은 브라히미가 골문 앞까지 침투해 추가골을 터뜨려 점수차는 1-4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홍명보 감독은 1-4로 점수차가 벌어지자 이청용 대신 이근호를 투입하며 또 한 번의 변화를 꾀했다. 후반 27분 이근호의 어시스트를 받은 구자철의 득점으로 추격에 나섰지만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다.

알제리에 패하면서 자력 16강 진출이 불가능해진 한국은 27일 오전 5시 상파울루의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열리는 벨기에전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야 한다.

앞서 열린 벨기에와 러시아전에서는 벨기에가 1-0으로 승리해 H조는 벨기에(2승·승점6·+2골), 알제리(1승1패·승점3·+1), 러시아(1무1패·승점1·-1), 한국(1무1패·승점1·-2) 순이 됐다.

한국이 벨기에에 승리한다는 전제 아래 16강 진출이 가능한 경우는 2가지다. 러시아가 알제리에 이기거나, 두 팀이 비기는 경우다. 그런 다음 승점이 같아지는 팀과 골득실 다득점 등을 따져 조 2위를 다퉈야 한다.

러시아가 승리하는 경우 한국은 최소 2골 차 이상으로 벨기에를 꺾어야 한다. 러시아와 알제리가 비기는 경우 한국은 3골 차 이상으로 벨기에를 이겨야 한다.

전반 26분 알제리의 이슬람 슬리마니의 선제골에 이어 2분뒤 라피크 할리시에게 추가골을 내준 대표팀 선수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벨기에는 이번 대회 첫 경기에서 알제리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만을 내주며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16강 진출을 확정한 벨기에가 3차전에서는 그동안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 위주로 선발진을 짜겠다고 한 것이 한국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 인턴기자 suno@metroseoul.co.kr

감독 용병술도 도마에

무기력 골잡이 박주영 고집 비난 화살

박주영의 부진에 따라 홍명보 감독(사진)의 용병술 논란은 불붙을 조짐이다.

홍 감독은 23일 알제리전에서 1차전과 변함없는 박주영을 원톱으로 내세운 4-2-3-1 전술을 구사했다. 박주영은 1차전에서 수비 가담이 높았지만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기대에 못미치는 움직임을 보이다 후반 11분 이근호와 교체된 바 있다.

2차전에서도 후반 12분 김신욱과 교체될 때까지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다. 1-2차전을 합쳐 단 한 번도 슈팅을 때리지 못한 최악의 부진을 보였다.

해외 언론은 1차전이 끝난 후 아스널에서 교체명단에도 제대로 오르지 못하다 왓퍼드로 임대된 박주영의 기용에 의구심을 나타냈고, 이들이 지적한 문제는 2차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히려 박주영이 교체된 뒤에야 한국의 공격이 살아나자 결국 홍 감독의 선수 기용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갔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부터 홍 감독의 소속팀 출전 선수 선발 원칙에 어긋났던 박주영의 기용 문제는 알제리전 패배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홍 감독은 경기 후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략 분석이나 대비이 잘못된 것"이라며 "전체 결과는 나의 실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종전에서의 라인업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유순호기자

손흥민 한국 축구의 희망봉

월드컵 첫골…나홀로 분전 에이스 '우뚝'

손흥민은 알제리전에서 졸전을 펼친 한국 축구 대표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손흥민은 23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의 베이라히우 주경기장에서 열린 알제리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0-3으로 뒤지던 후반 5분 만회골을 넣으며 역전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다.

기성용이 하프라인에서 페널티안으로 깊숙이 넘겨준 패스를 등으로 받아내는 감각적인 동작을 보여준 손흥민은 다시 몸을 돌리며 빠르게 슛을 때려 골키퍼 다리 사이로 골을 성공시켰다.

비록 승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골이었지만 손흥민 개인과 대표팀에는 여러 의미를 줬다. 손흥민은 첫 월드컵에서 개인 통산 첫 골을 기록하며 향후 한국을 대표하는 골잡이로 활약할 것임을 세계 무대에 알렸다. 손흥민의 골은 한국의 월드컵 본선 통산 30번째 골이다.

러시아와의 1차전에서도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3차례 슈팅을 시도한 그는 공격 포인트 없이도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됐다. 27일 벨기에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차전 패배의 분풀이를 꿈꾼다.

손흥민이 한국-알제리전 후 패배의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초반 사소한 실수로 실점해서 어려운 경기를 했다. 후반 전처럼 했으면 하는 후회가 든다"며 "각오는 따로 필요 없는 것 같다. 벨기에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므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고국 축구팬에 힐링 승전보

류현진 9승… 한국전 시청 "다음 경기 믿는다"

몬스터 류현진(26·LA다저스)이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패배로 침울해진 스포츠 팬들을 위로했다.

류현진은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안타 4개만 내주고 1실점으로 막아냈다. 올 시즌 14번째 등판에서 시즌 9승(3패)을 올렸다. 메이저리그 입성 첫해인 2013년 시즌 20경기째 9승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6경기나 빠른 행보다.

류현진은 34개의 공으로 3이닝을 채우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경기 초반 투구 수 조절에도 성공했다. 이날 류현진은 3회까지 9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하는 '퍼펙트 피칭'을 펼치는 등 샌디에이고 타선을 손쉽게 요리했다.

4회 선두타자 크리스 데노피아에게 시속 132㎞짜리 슬라이더를 던지다 중전안타를 맞아 첫 피안타를 기록했다. 6회 선두타자 크리스 데노피아에게 2루타를 내줘 결국 실점한 장면이 아쉬움을 남겼지만 2-1 리드를 지키는 견고한 모습도 과시했다.

다저스가 2-1로 앞선 7회초 공격에서 대타 제이미 로막과 교체된 류현진은 불펜진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 승리투수가 됐다. 시즌 10번째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기록하며 시즌 평균자책점은 3.18에서 3.06으로 낮췄다.

류현진의 방망이도 뜨거웠다. 희생번트를 성공시켜 팀 득점에 발판을 만들었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안타를 기록했다. 1회초 1사 1·3루에서 애드리안 곤살레스의 행운이 깃든 투수 땅볼로 선취점을 얻은 다저스는 2회1사 1·2루에서 류현진의 희생번트로 2사 2·3루 기회를 이어갔고 디 고든의 우전 적시타로 추가점을 뽑았다. 5회에는 좌전 안타를 만들어냈다.

이날 경기는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과 알제리의 조별리그 2차전이 시작된 지 70분 후 열려 관심을 모았다. 류현진은 한국의 패배로 우울한 축구 팬들에게 위로의 승전보를 전했다.

이날 등판하기 전까지 라커룸에서 한국-알제리전 중계방송을 지켜본 류현진은 "한국전은 봤는데 다음 경기는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OOO기자

LPGA 미셸 위 시대 열리나

첫 메이저 US오픈 우승 시즌 2승 등 모두 상위권

2014시즌은 미셸 위 재발견의 기간이다.

올 시즌 화려하게 부활한 재미동포 미셸 위(25·미국·사진)가 내친김에 생애 첫 메이저대회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미셸 위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의 파인허스트 골프장 2번 코스(파70·664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에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2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미셸 위는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이븐파 280타)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축배를 들었다. 2006년 10월 프로로 전향해 9년 만에 품에 안은 메이저대회 우승컵이다.

미셸 위의 우승으로 2011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2012년 최나연(27·SK텔레콤), 2013년 박인비(26·KB금융그룹) 등 4년 내리 한국계 선수가 이 대회를 제패하는 진기록이 수립됐다.

미셸 위의 부활은 올 시즌 출전한 경기 성적에도 고스란히 표출되고 있다. 미셸 위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래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부터 why 달라졌다.

미셸 위는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롯데 챔피언십에선 약 4년 만에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후에도 스윙잉 스커츠 LPGA 클래식에서 공동 9위, 노스 텍사스 LPGA 클래식에서 3위, 에어버스 LPGA 클래식에서 공동 3위, 숍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정해훈기자

호날두 90분 투혼 진땀 무승부

독일-미국전에 G조 운명

미국과 포르투갈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G조 순위경쟁이 혼전으로 접어들었다.

포르투갈은 23일 브라질 마나우스의 아마조니아 경기장에서 열린 미국과 경기에서 1-2로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바렐라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독일과의 1차전에서 0-4로 대패했던 포르투갈은 이날도 패색이 짙었지만 가까스로 승점 1점을 챙겼다. 호날두는 바렐라의 골을 도우며 이번 대회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전날 열린 독일과 가나의 경기가 2-2 무승부로 끝나면서 G조는 독일(1승1무·승점4), 미국(1승1무·승점4), 가나(1무1패·승점1), 포르투갈(1무1패·승점1)이 1~4위에 올라 있다.

8개 조 중 가장 근소한 승점차를 보이며 어느 팀도 마지막까지 16강행을 안심할 수 없다.

그러나 27일 오전 1시 동시에 열리는 G조 최종전에서 독일과 미국이 비긴다면 두 팀이 1·2위로 16강에 진출한다. 담합 의혹이 일 수 있는 묘한 상황이다.

미국 감독은 독일이 배출한 세계적인 스타 공격수 위르겐 클린스만이다.

/유순호기자 sun@

수아레스 vs 발로텔리 악동 맞짱

월드컵 프리뷰

유럽과 남미의 전통강호 이탈리아와 우루과이가 한 장의 16강행 티켓을 놓고 끝장 승부를 벌인다. 이미 2연승을 따낸 코스타리카는 귀국 준비 중인 잉글랜드와 다소 싱거운 대결을 펼친다. C조는 네 팀이 마지막까지 혼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탈리아-우루과이(25일 오전 1시·두나스 경기장)

이탈리아가 비기기만 해도 조 2위에 오를 수 있지만 우루과이는 무승부 작전이 통할 만큼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루이스 수아레스(사진)가 부상에서 회복해 골맛을 봤고, 난적 잉글랜드를 꺾어 승리의 기운으로 한껏 달아올라 있다.

이탈리아는 1차전에서 골을 넣은 간판 골잡이 마리오 발로텔리의 득점 행진에 기대를 건다. 혹시라도 두 악동이 분노 제어를 하지 못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도 이 경기의 흥미거리 중 하나다.

◆코스타리카-잉글랜드(25일 오전 1시 미네이랑 주경기장)

D조 최약체에서 지옥의 조 최강팀으로 우뚝 선 코스타리카가 잉글랜드마저 잡을 지 관심이 쏠린다. 56년 만에 월드컵 1라운드에서 탈락한 잉글랜드는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축구 종가의 마지막 자존심 지키기에 나선다.

월드컵 비운의 스타 중 하나인 잉글랜드의 웨인 루니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본-콜롬비아(25일 오전5시·판타나우 경기장)

1무1패로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이 16강행을 위해 조 1위 콜롬비아를 상대로 마지막 희망을 불태운다. 일본은 콜롬비아에 승리해야만 그리스-코트디부아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대회 단 한 골만을 넣은 일본의 부진 탈출, 이번 대회 남미 강세를 주도하는 콜롬비아의 연승행진이 관전 포인트다.

◆그리스-코트디부아르(25일 오전 5시·카스텔랑 주경기장)

코트디부아르의 16강 진출 여부가 가려진다. 코트디부아르는 승점 3으로 2위를 달리고 있다. 부상에도 매 경기 교체 선수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골잡이 드로그바가 얼마나 투혼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회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그리스의 골 가뭄 해소 여부도 관심사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 마산

삼성	000	000	000	0
NC	000	000	000	0

■ 대전

LG	000	000	000	0
한화	000	000	000	0